음악감상·연주회 관람·인문학 수업…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다면

SALON DE SONORE
살롱 드 소노르

동호회 '살롱 드 소노르'…칵테일 등 다양한 주제 클래식 공부
20~40대 회원들 연주자 초청도…28일 하동 최참판댁서 공연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됐던 경남 하동 최참판댁 마당에서 클래식 연주회(28일 오전 11시)가 열린다. 특이하게도 이번 연주회를 기획한 이들은 광주의 작은 클래식 음악 동호회 회원들이다. 이들은 직접 연주자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 클래식이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야외음악회를 준비했다. 연주곡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봄', 피아노 3중주로 듣는 '고향의 봄' 등이다.

행사를 기획한 건 지난해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 동호회 '살롱 드 소노르(Salon de sonore)'다. 불어인 'sonore'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살롱 드 소노르'는 '음향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축음기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호회의 로고처럼, 함께 모여 소리의 울림, 마음의 울림으로 소통하고 배우며 힐링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회비로 음악인들을 직접 초청해 연주와 강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창하지는 않아도, 아티스트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마음도 실었다.

최근 글쓰기, 독서, 영화 감상, 그림 등 다양한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모임은 많지 않은 편이라 이들의 활동이 특히 반갑다.

모임의 출발은 성인 피아노 교습이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나투어뮤직을 운영하는 피아니스트 최원영(32)씨는 자신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던 수강생 5명에게 슬쩍 모임을 꾸려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오래전부터 꿈꿔 왔던 모임입니다. 클래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연주회도 가고, 함께 모여 클래식 음악도 감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클래식과 관련한 인문학적 지식도 쌓고, 직접 연주자를 초청해 연주회도 듣고요.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꾸려가면 어떨까 싶었어요. 클래식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편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요."

피아노를 배우며 클래식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수강생들은 최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뒤늦게 피아노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니 클래식에 모두 관심은 있으셨죠. 공연장에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데 어떤 공연을 봐야할지, 어떻게 감상할 지 잘 몰라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들 생각하셨나 봐요. 함께 한다는 소속감, 소통의 소중함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살롱 드 소노르'는 SNS 등을 통해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20~40대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음악동호회 '살롱 드 소노르' 정기 모임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음악가들의 연주도 듣는다. 〈살롱 드 소노르 제공〉

지난해 12월 모임 결성 후 김수연 피아니스트 연주회장을 찾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첫 출발을 했다. 또 나인국·김기용 첼리스트의 '두 남자 첼로 이야기' 연주회에도 다녀왔다.

나투어 뮤직에서 한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모임은 매번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된다. 2월에는 '칵테일'과 클래식을 접목했다. 광주에서 몰트바 '르뱅'를 운영하는 이하승 바텐더를 초빙해 '칵테일과 영화음악'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영화 '007' 시리즈와 '킹스맨'에 등장하는 마티니 등 다양한 칵테일을 접했다.

이어 '애주가'로 알려진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와 그의 대표작 '전람회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드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다양한 칵테일을 맛보는 시간도 자연스레 이어졌다.

3월 모임은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가 주제였다. 드뷔시의 삶과 인상주의에 대한 소개, 그의 음악에 대한 감상이 이어졌다. 회원 이다솔씨와 박혜선씨는 각각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과 '달빛'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줬고 플루티스트 박지수씨가 '시링크스'를 연주했다. 4월 모임은 김치형 지휘자를 강사로 초청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하동 음악회는 '우연'이 만들어준 행사였다. 클래식 모임 기획을 위해 늘 다양한 아이템을 찾던 최 씨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하동차(茶)' 판매 팝업 가게에서 우연히 하동군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번 음악회 개최로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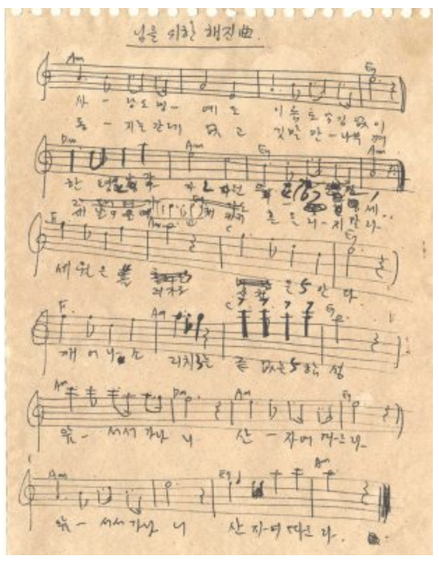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스트 서현일,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종, 첼리스트 나인국·김기용이 함께 하고 '쟈드리'에서 제공하는 차를 무료로 마시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6월에는 김승일 전 조선대 교수의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비를 모아 연주자를 초빙해 음악을 듣고, 전문가들에게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씩 소양을 쌓아가고 있어요.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 마음도 나눌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정회원은 3개월에 15만원, 비회원은 회당 6만원이다. 인스타그램 DM(Salondesonore)/네이버 블로그(살롱드소노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 40돌 그날의 이야기 듣다



27일 광주극장서 창작 40주년 행사… 황석영 소설가 등 참여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슬픈 결혼식이 거행됐다. 80년 5월 항쟁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에서 헌신하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이었다.

이후 그 해 4월 광주 운암동 황석영 소설가의 집에 문화활동가들이 모였다. 윤상원·박기순 열사를 기리기 위한 노래극 '넋풀이-빛의 결혼식'의 마지막 삽입곡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황석영 소설가가 백기완 선생 등의 시집에서 시를 골라 노랫말을 만들고 김종률이 곡을 만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제작된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됐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입소문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40주년 기념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날이 오는 27일로, 광주 항쟁 최후의 날이었던 27일과 겹쳐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40주년 기념행사'를 광주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 탄생부터 미래까지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자리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황석영 소설가를 비롯해 함께 노래를 만들고 노래했던 이들이 모인다.

이날 좌담은 '과거'로부터 시작한다. 1982년 '넋풀이' 제작 당시 노래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만든 소설가 황석영과 작곡자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오정묵씨와 윤만식, 임희숙, 전용호씨 등이 참여해 당시 상황을 떠올린다.

황석영

'현재'에서는 홍콩, 일본, 미얀마 등에서 불려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영상이 상영되며 뮤지컬 '화려한 휴가', '빛의 결혼식', '광주'의 일부가 상영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시간도 있다. 마지막 '미래'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전통음악기법을 활용한 '임을 위한 행진곡' 'Four Hands for Piano'가 청년 음악인 박종선, 정은수의 연주로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향수

'수련'

이기월 화백 기증 작품전, 7월17일까지 남포미술관

고흥에 위치한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이 월보 이기월 화백 작품 기증전(7월 17일)을 개최한다.

이기월 화백은 남포미술관 개관 당시 14점의 작품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45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향수 nostalgi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화백이 이번에 새롭게 기증한 24점과 남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0여점 등 24점을 함께 선보인다.

화가로,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이 화백은 광주 출생으로 서중, 일고를 거쳐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담은 '불갑사', '울릉도', '쌍계사' 등의 작품과 생동감 있는 색채가 인상적인 '수련'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자연 풍광을 소재로 한 인상주의 구상회화 작업을 해온 이 화백은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마음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와 베를린 기념 조형물 백종옥 작가 26~27일 강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 4강은 '광주와 베를린의 기념 조형물'을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26일과 27일 오전 10시이며 강사는 백종옥 작가〈사진〉.

백 작가에 따르면 베를린은 '역사를 가장 예술적으로 기억하는 도시'다. 백 작가는 이번 강좌에서 베를린 곳곳의 기념 조형물과 이와 관련된 역사를 설명하며 아울러 광주 기념조형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백 작가는 "기념조형물은 역사의 교훈뿐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기념조형물에 깃든 의미와 역사 등에 대해 폭넓게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무료다. 희망자는 26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빼고' SNS 오픈채팅방으로 입장

6월 19일까지 '기분좋은극장'

관객과 배우가 SNS로 실시간 소통하며 극이 진행되는 독특한 연극이 찾아온다.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광주시 서구 치평동)은 오는 6월 19일까지 연극 '나만 빼고'를 무대에 올린다. 〈사진〉

이 작품은 모든 관객들이 휴대전화를 켜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주연배우와 직접 소통하면서 연극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세계 최초 카톡 연극이라고 불리는 '나만 빼고'는 1시간 40여 분 간 진행되는 연극에서, 주인공 '진욱'이 홀로 떠난 이별여행에서 만난 독특한 사람들과 재미난 상황들을 그려낸다.

진욱이 여행 도중에 만나게 되는 취준생 세 친구, 주말부부 남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어 서울에 도착해서 고백을 준비하게 된다.

관객들은 주인공 '진욱'의 이야기를 비롯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되는 여러 이야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등장 캐릭터에게 조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극에 참여할 수 있다.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전석 3만5000원. 화~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4시, 월요일 휴무.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